

하늘이 내린 큰 복

洪天
福賜

明慧期刊 제150기



목 차 CONTENTS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두일문 1 설 명절 풍습과 대련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독후감 2 “하늘이 내린 보물”

길성고조 4 고령 노인: 전염병이 나를 보면 도망간다

(吉星高照)

5 천진 대폭발을 여행히 피하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6 남편의 담관암이 기적처럼 사라지다

세상을 이롭게 8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대법 얻어 활기차게 걷다

12 새해를 맞아 59개국에서 전해진 감사와 축복

14 터키 상인: 중독자가 환골탈태하다

16 한 폴란드 청년의 인생 이야기: 가족애와 부, 행복

평안을 얻는 길 20 원찬 대지진 속의 기적,
경찰이 듣고 선한 마음이 생기다

22 난세 속에서 오직 신과 부처만이 우리를 지켜준다

아는 것이 복 24 접종 후 큰 불행 겪을 뻔한 부친 대법 믿고 구원받다

25 동창의 이야기: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27 “삼퇴”란 무엇인가? 어떻게 탈퇴하는가?

향간여론 28 “걷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29 설 명절 대련 모음



설 명절 풍습과 대련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납팔절이 지나면 설 명절 분위기는 점차 짙어진다. 중국의 설날은 음력 설달 23 일이나 24일 작은 설(小年)의 ‘조왕신 제사(祭灶)’로 시작해 정월 대보름 원소절 까지 이어진다.

작은 설의 핵심 풍습은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지난 한 해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하늘로 보내는 의식이다. 조왕신은 각 가정의 선악을 천제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길흉화복이 정해진다고 여겨진다. 며칠 뒤 조왕신이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은 또 ‘조왕신을 맞이하는 의식(接灶神)’을 치른다.

일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단것으로 조왕신의 입을 붙여 좋은 말만 하게 한다고 하나, 제사의 본래 의미는 이익이 아닌 신을 공경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다.

설 대련을 붙이는 것 또한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설 풍습의 하나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복과 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련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신년납여경(新年纳余庆), 가절호

장춘(嘉节号长春)”이라는 문구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련으로 ‘새해에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명절은 영원한 봄이라 불린다’라는 뜻이다.

이 대련의 작자는 후촉(後蜀)의 군주 맹창(孟昶)이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송나라가 후촉을 멸망시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후촉의 도성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의 이름이 바로 ‘여경(余庆)’이었고, 송 태조의 생일은 ‘장춘절(长春节)’로 정해졌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인연 속에서 맹창의 대련은 왕조 교체를 정확히 예고한 셈이 되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 마음속의 선함을 지키고, 신의 은혜에 감사하자.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 가정이 평안하고, 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하늘이 내린 큰 복’ 편집부
2025년 12월 30일





리홍쯔 선생이 전 인류를 위해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인류의 기원, 삼계(三界), 그리고 우주의 미혹(迷)을 밝혀냈으며 구구절절 천기를 담고 있다.

“하늘이 내린 보물”

글/ 위전(玉珍, 중국)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신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신 후, 대법 제자로서 더 많은 세인이 천기를 듣고, 진상을 분명히 알고 구도 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직접 경문을 전해주었고, 사람들이 경문 제목을 보는 순간, 그 감동과 흥분의 눈빛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 경문을 찾고 있었다. 다음은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꼭 경문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2023년 어느 날, 나는 한 아파트 단지

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있었다. 마주 오는 중년 남녀 한 쌍을 보고 인사를 건넨 뒤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특집 책자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역병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평안을 얻은 실제 일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곧바로 말했다. “아주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 대사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그 글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이 대사님의 글에는 모두 천기가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주머니, 꼭 좀 찾아 주세요!”

나는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꺼내며 말했다.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 손에 전해 드립



▲ 그림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진상을 알리고 리훙쯔 사부님의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건네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무사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자: 금강(金剛).

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바로 그 글임을 확인하자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건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보물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운이 좋고,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내가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서둘러 “맞습니다! 이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마을 간부들까지 모두 보고 있다”

또 한 번은 농촌에 가서 진상을 알렸다.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노인을 보고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중 한 분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기에, 역병이 닥쳤을 때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지 알려주는 자료를 드리러 왔다고 했다. 이어서 명혜 정기간행물 한 권과 대법 진상 호신부(护身符)를 건네고, 또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꺼내 설명해 드렸다.

나는 이것이 대법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전 세계 중생에게 밝히신 천기이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당신의 복이자 인연이라고 말했고, 그는 매우 기뻐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또 다른 한 분에게도 정기간행물 한 권을 건넸는데, 그분은 다소 망설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반자가 곧바로 말했다. “어서 받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이 파룬궁 자료를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을 간부 책임자들까지도 다 보고 있는데, 뭐가 두렵나요?! 빨리 받으세요!” 이 말을 듣자 그는 곧바로 자료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이어서 ‘삼퇴’(공산당·공청단·소선대 탈퇴)가 평안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설명해주었다. 두 분은 당에는가입한 적이 없지만, 어릴 적에 소선대에 가입했었다고 말했다. 진상을 분명히 이해한 뒤, 두 분 모두 흔쾌히 소선대 탈퇴를 선택했다. 내가 떠날 때 두 노인은 대문까지 배웅하며 거듭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령 노인: 전염병이 나를 보면 도망간다

[중국 투고] 시아버지는 올해 85세로, 은퇴한 교사다. 2022년 12월 8일,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방역 봉쇄가 해제되자 지역 주민의 90%가량이 확진되었다.

시아버지는 아주버님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데, 평소 마작놀이를 즐긴다. 나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아직도 마작 하러 나가시는지 여쭈었다.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확진됐는데, 나는 별 일도 없다. 큰아들 부부도 확진됐어. 고열에 온몸이 아프고, 반 달 넘었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라고 말했다. 닷새 뒤 남편이 다시 시아버지께 전화로 안

부를 물었다. 시아버지는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는 매일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고 있어, 전염병은 나를 보면 도망간다!” 나와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시아버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지는 않지만, 대법을 믿으며 특히 우리 부부의 수련을 매우 지지하셨다. 시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는 정말로 영험하구나! 수십 년 동안 앓던 요추 탈구증이 침도 맞고 약도 먹으며 많은 돈을 썼는데도 낫지 않더니, 이 아홉 글자를 외운 뒤로는 어느 새 허리가 다 나았어.” 나는 웃으며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님, 매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시면 신과 부처님께서 아버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파룬궁은 중국에서 출곧 합법적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중공 스스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된다. 첫째, 중국 현행 헌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공문(공통자 [2000]39호, 공통자 [2005]39호)에서, 이들이 규정한 14종의 사교(邪教) 명단을 공표했는데, 그 안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출판총서가 내린 제50호 명령은 이미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파룬궁 서적을 소장하는 것은 모두 합법이다.





천진 대폭발을 요행히 피하다

[중국 투고] 2015년 천진 대폭발이 발생했을 당시, 나는 발해만 해역을 운항하는 전용 다목적 화물선에 고용되어 컨테이너 운송 일을 하고 있었다. 주로 천진과 친황다오를 오갔으며, 항해 시간은 3~4시간 정도였다. 내 일 대부분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었고, 실제 항해 시간은 매우 짧았다.

2015년 8월 12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우리는 천진 루이하이 회사의 컨테이너 부두를 떠나 친황다오로 향했다. 우리가 천진 부두를 떠난 지 세 시간도 되지 않아, 천진 루이하이 위험물 창고(부두)에서 TNT 환산 약 450톤 규모의 대폭발이 발생했고, 거대한 불기둥이 순식간에 부두를 집어삼켰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로 165명이 사망하고 798명이 부상했으며, 수백 동의 건물과 거의 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파손되었다.

그때 우리는 바다 위를 항해 중이었고, 멀리서 하늘을 밝히며 번쩍이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운이 좋았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스쳐 지나



간 것이었다.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행운이 많았다.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은 재난 앞에서 인생의 궤도와 혐난한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2011년, 내가 타고 있던 ‘진더 3호’ 화물선은 황푸강 하구에서 충돌 사고를 당했다. 거대한 구멍이 순식간에 생기며 바닷물이 선체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그러나 배는 기적처럼 얇은 여울에 걸렸고, 우리는 또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매번 화를 피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고, 대법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담관암이 기적처럼 사라지다

[랴오닝 투고] 2020년 8월, 남편의 온몸 피부가 갑자기 누렇게 변했다. 우리는 시내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담관이 막혔다고 말했다. 의사는 담즙이 퍼져 오장육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한 이 수술은 난도가 매우 높아 간, 담낭, 소장, 비장, 췌장 등 여러 부위가 연관될 수 있다고 했다.

수술 후 암이 간문부로 전이되다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베이징 301 병원에서 한 전문가를 초빙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뒤, 남편은 담관암 확진을 받았다.

그 전문의는 석 달 뒤 재검사를 하고 항암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병은 악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반드시 서둘러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암치료 한 차례를 마친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의사는 남편의 병세가 오히려 악화되었고 종양이 간문부로 전이되어 크기가 이미 4cm까지 자랐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가족 모두는 깊은 슬픔

에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의사는 말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병은 원래 그렇습니다. 재발이 매우 빠르고, 어떤 사람은 수십 일이나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 이웃도 같은 병을 앓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2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의사는 다시 치료 방안을 검토한 뒤 항암치료를 재개했다. 이번 항암치료로 남편은 완전히 쓰러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머리카락도 모두 빠졌다. 식사도, 화장실에 가는 일도 힘에 부쳐 전부 내 간호에 의지해야 했다. 이렇게 항암치료를 계속하다가는 사람이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상의한 끝에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사는 동의하지 않으며,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끔찍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스스로 ‘대법은 좋다’를 외우고 대법 서적을 읽다

나는 남편과 파룬궁 수련에 관한 이야기를 차분히 나눌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했다. “나는 매일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
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외우고 있어. 수술대에 올라가 있을
때도 계속 외웠어.”

나는 몹시 놀랐다. 나는 1996년부
터 파룬궁을 수련해 왔고, 그 당시에는
가족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남편은 나의 수련을 반대했고, 그 문제
로 우리는 수 없이 다투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남편이 어떻게 먼저 ‘파룬따파
하오’를 외우게 된 것일까? 남편은 그때
자신이 수련을 반대한 이유가 박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또 대법 서적을 읽고 싶다고
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법공부를 했고, 하루에 열 쪽씩 읽었는
데, 늘 남편이 소리 내어 읽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도 엄정
성명을 써야 해요. 예전에 대법과 사부
님에 대해 했던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요.” 남편
은 이에 동의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정
중한 성명서를 작성했고, 남편은 그 위
에 진지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그 성명
서를 명혜망에 보냈다.

반년 만에 기적처럼 회복된다

남편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



아졌다. 그는 법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진심을 다해 “파룬따파하오, 쩐
싼런하오”를 외웠다.

반년이 지나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다. 남편을 본 의사는 몹시 놀라
며, 이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
았다고 했다. 의사는 남편에게 복부 전
체 CT를 찍고, 이어 조영 CT 검사까지
진행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종양이 사
라졌다!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왜 사라졌지?” 이것은 현재의 의학으
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2년 뒤 남편은 다시 한번 검사를 받
았고,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대법 얻어 활기차게 걷다

글/ 류스(若石, 중국)

젊었을 때의 나는 또래들 중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을 나왔고, 30여 세에 이미 기관의 중층 책임자였다.

심각한 교통사고, 죽기보다 괴로운 삶

그러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법이다. 심각한 교통사고로 나는 순식간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추와 허벅지, 오른발이 분쇄 골절되었고, 오른발은 탈구 되었다. 7번의 큰 수술 끝에 결국 고위 척수 마비 판정을 받았다. 비록 양쪽 목발에 의지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평생 장애라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집에 머물며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몇 해는 하루하루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사고로 인해 경추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긴 신경성 경련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다. 뇌는 한순간도 편안해질 수 없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경련 때문에 매일 밤 몸을 일으켜 앓아 고통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고, 다시 해 질 때까지 벼텨

야 했다. 끝이 없는 시달림과 고통은 차라리 죽기보다 못했다.

나는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죽어야 고통을 줄일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덜 짐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뿐이다. 한때는 신의 구원을 바라기도 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했다. 어릴 때부터 사악한 당에 의해 ‘무신론’을 주입받아 왔기에, 신과 부처의 존재는 그저 사람들의 정신적 위안일 뿐이라고 여겼다. 신불이 존재를 믿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부처와 신이 있어 이 끝없는 고해에서 나를 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무렵 가족들은 점을 보는 사람을 찾아가 내 운명을 봐 달라고 했다. 그 사람은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했고, 이번 생에서 빚을 받으려 온 원수가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세 번 채찍질을 당해 세 곳을 다쳤으며, 조상 중에 불도를 닦은 사람이 있었기에 목숨만은 건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곰곰이 생각



해 보니, 어쩐지 일리가 있는 듯했다. 전 생의 원수가 세 번 채찍질해 세 부위를 다치게 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았다. 실제로 나는 경추, 허벅지 골절, 오른발 변형과 탈구, 이렇게 세 곳을 크게 다쳤다. 그러나 조상 중에 수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가문의 여러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출가해 스님이나 비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법을 얻어 절망 속에서 새 삶을 찾다

1995년 하반기,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가 우리 도시에 전해졌다. 대학 시절의 한 여자 동창이 파룬궁 보도소의 책임자였는데, 나에게 수련을 권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당 문화에 깊이 중독되고, 혼란한 세속에서 너무 오래 헤매다 보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반년 뒤, 거리에서 그 동창을 다시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 예전에 늘 병에 지쳐 얼굴이 누렇고 몹시 야위었던 그녀는 마치 십여 년은 젊어진 듯했고 살도 붙었으며, 얼굴은 희고 붉은 윤기가 돌았다. 말과 행동에서 낙관과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가 다시 수련을 권하자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나를 연공장으로 데려갔다. 사람들이 모두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자비롭고 평온했다. 나는 파룬궁의 네 가지 동공(劫功) 동작을 배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었다. 나는 정말 기뻤다. ‘대법이 이렇게도 신기하구나!’

다음 날 마침 새로 ‘9일 학습반’이 시작되어 나는 참가했다. 학습반 둘째 날, 학습반에 들어서는 순간 이마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모였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신기함이었다. 이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수련하는 제자에게 천복을 열어주는 상태와 똑같았다.

수련을 시작한 이후, 나의 신체 상태와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됐다. 경련은 여전히 가끔 나타났지만 점점 가벼워졌고(지금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수년간의 고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됐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혀 온 만성 인후통 역시 몇 차례 정화 과정을 거쳐 사라졌다. 또한 경추 신경 압박으로 인해 자유롭지 않던 두 다리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을 외우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고통을 참고 연공하다

대법의 저작인 ‘전법륜(转法轮)’은 귀중한 보물이다. 나는 법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쪽도 외우



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분량을 늘려 세 번째 강의 때는 하루에 7~8쪽을 외울 수 있었다. 반년 남짓한 시간에 ‘전법륜’을 한 번 외웠고,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외울 때 대부분을 기억할 수 없어도, 낙담하지 않았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차 깊어졌고, 어느새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기간 사부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로 끌어올려 주시며, 몸을 정화해 주셨고, 끊임없이 심성의 관문을 넘도록 안배해 주셨다. 일에 부딪힐 때마다 안으로 자신을 찾아보면서 심성은 끊임없이 승화되었다. 과거 집착하던 명예와 이익, 감정, 떨쳐내지 못하던 유혹과 내려놓지 못하던 욕망 등이 법을 배우면서 점차 담담해지고, 내려놓게 되었다. 몸 또한 점점 젊음으로 되돌아가 주름이 줄고 피부가 부드럽고, 허리는 꽂꼿해지고 기력도 넘쳐났다.

법을 외우며 단맛을 보자 계속해서 외웠다. 두 번째는 석 달 만에 마쳤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점점 더 짧아졌다. 2009년, 내가 중공에 납치되었을 당시에는 책을 보지 않고도 ‘전법륜’을 거의 전부 암송할 수 있었다.

이제 연공에 대해 말해 보겠다. 사부님께서는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며 성명쌍수(性命双修)의 공법을 전하셨다. 제



▲ 회화: 《돌아가다(归兮)》, 저자: 허난 대법제자

자들이 심성을 수련하고 동작을 연마함으로써 본체를 전환하고, 우주의 특성과 동화되어, 최종적으로 원만에 이르게 하셨다. 사부님의 구령에 따라 연공할 때마다, 사부님께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듯, 시시각각 사부님의 끝없는 불은(佛恩)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연공 과정에서 내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일반 수련자들보다 훨씬 컸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위 척수 마비로, 당시 양쪽 목발에 의지해 걷는 것도 몹시 힘들었다. 네 번째 공법 ‘파룬찌우톈파(法轮周天法)’를 연마할 때는 아예 쪼그려 앉을 수조차 없고, 계단을 불잡고서야 겨우 천천히 내려갈 수 있었고, 통증으로 온몸에 땀이 흘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연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연



공을 마치고 나면 몸은 매우 편안해졌고,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약간 절뚝거릴 뿐). 심지어 십여 리를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단체 법공부와 연공 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곳곳에 고압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 드리웠다. 그러나 대법의 진리는 이미 내 마음 깊숙이 뿌리내렸고, 대법을 수련하려는 결심은 반석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법공부를 마친

뒤 다섯 가지 공법을 꾸준히 연마했으며, 단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다.

올해 나는 72살이다. 이번 생에 인간으로 동토(東土)에 내려와 대법이 전해지는 시대를 만났고, 대법과 성스러운 인연을 맺어 사부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제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오직 정진하여 착실히 수련함으로써 사부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량한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해답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가요?

답: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수련법으로, 심성 수련을 중시합니다. 그 목적은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심성 수련과 연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엄을 수 있습니다.

파룬궁은 질병과 업력(业力)을 어떻게 보나요?

답: 파룬궁에서는 업력(业力)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심성 제

고와 연공을 통해 업력이 소멸되어 몸이 정화되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얇은 층 차에서 볼 때 전통 한의학의 “정기(正氣)가 충만하면 사(邪)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파룬궁은 약을 먹는 것을 금하나요?

답: 파룬궁의 모든 서적을 살펴보아도 “약을 먹지 말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많은 수련자가 파룬궁을 배우고 수련하면서 몸이 건강해져 약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수련생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59개국에서 전해진 감사와 축복

명혜 통신원 종합보도

2026년 새해를 맞아, 명혜망(明慧网)은 전 세계 5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각 민족 파룬궁 수련자들과 일반인들이 보내온 연하장, 축하 인사말, 축하 서신을 받았다. 이들은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李洪志) 선생의 크나큰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올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했다.

**전 세계 수련자들,
사부님의 대법 전파에 감사**

캐나다 밴쿠버의 대법제자들은 한 편의 시를 지어, 사부님께서 진선인(真善

忍·진실·선량·인내)의 대법을 전해주셨기에 속세에 미혹되어 있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반본귀진(返本归真)하는 수련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역시는 전 세계 각 민족 파룬궁수련자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윤회 속에서 헤매는 이유를
과연 몇이나 깊이 생각해 보았던가
명예와 이익을 좇아 평생 바쁘게 살다
말년에 돌아보니 헛된 세월만 보냈네
사부님께서 대법을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단명료한 이치와 말로
미혹을 깨우치게 하셨네
대법에 동화되어 중생을 구하고
서약을 실행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리

스위스 출신의 마누·후빌러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29년이 되었다. 새해



를 맞아 그녀는 수련 후 자신의 변화를 전했다. “원래 저는 매우 이기적이고, 안일한 삶을 즐기려 했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행복



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진선인’임을 깨닫게 해 주셨고, 저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사부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전문 사진작가 마티아스는 어머니의 인도로 2004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전법륜(转法轮)’을 읽은 후 그는 ‘거대한 보물’을 발견했음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수련을 통해 저는 이 세상에서 위치를 찾았고, 생명의 의미가 태어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상을 알게 된 시민들, 대법의 보호에 감사

명혜망은 또한, 수련하지는 않지만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고 복을 받은 중국

일반 시민들이 보내온 많은 연하장과 축하 서신을 받았다. 이들은 소박한 언어로 자신이 대법의 은혜를 입은 실화를 전하며, 생명을 구해준 대법에 감사하고 리훙쯔 선생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지면 관계상 한 사례만 소개한다.

산동성 엔타이시 자오위안에서 보내온 한 통의 축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가족 세 사람은 아직 정식으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파룬궁이 바른 법이라는 것을 믿어 대법 사부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차는 폐차되었지만, 사람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양쪽 폐가 모두 하얗게 변할 정도로 위중했습니다. 저는 파룬궁 수련자가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외우라고 한 말을 잊지않고, 대법 사부님께 간청했습니다. 약물 치료없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14살인 아들도 대법과 사부님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반 친구들 대부분이 감염되었지만, 아이는 감염되지 않고 줄곧 건강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가족 세 사람은 진심으로 대법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터키 상인: 중독자가 환골탈태하다

글/ 터키 파룬궁수련생

8년 전, 명상 방법을 찾던 중 운좋게 파룬궁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 연공했을 때, 정수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온 허리 통증이 즉시 사라졌다. 나는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가 매우 강력한 수련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배우고 싶었다. 한 친구가 나에게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 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전법륜(转法轮)’ 한 권을 주었다.

‘전법륜’을 읽고 나서, 내가 과거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대법 사부님께서는 매우 간결한 언어로 우주와 생명의 진상을 명백히 논술하셨고, 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한다. 정말로 수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당신은 담배를 끊도록 하라. 보장컨대 당신은 끊을 수 있다. 이 학습반의 장(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생각하-

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끊으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당신은 끊을 수 있으며, 당신이 또다시 담배를 들고 피운다 해도 제 맛이 아니다. 당신이 책을 보면서 이 한 강의를 보아도 이런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수련하기 전 나는 하루에 담배를 두 갑 반이나 피웠다. 수련을 막 시작했을 때 담배를 피우려고 첫 모금을 빨자마자 위가 아프고 심하게 메스꺼워 도저히 피울 수 없었다.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해 식사 후 다시 피워 보았지만, 역시 피울 수 없었다. 그날 담배를 반 개비밖에 피우지 못했다. 정말 믿기 어려웠다.

나는 또한 과거에 마약과 알코올을 심하게 사용한 적도 있었다. 사람이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수년에 걸친 많은 약물 치료와 그리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고, 불과 몇 달 만에 나는 마약과 술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

사업을 하며 자주 해외를 다닌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내가 약도 쓰지 않고 의사의 치료도 받지 않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끊었다고 하자,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곤 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따파를 수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전법륜’과 파룬따파 관련 웹사이트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사람들은 내가 술에



▶ 2025년 4월 초, 터키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현지 오렌지꽃 축제에 참가해 관광객들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 (명혜망)

취해 난폭하던 중독자에서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고 연신 놀라워했고, 많은 이들이 파룬궁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매일 연공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연공을 한 날에는 피로감과 수면이 눈에 띄게 줄었다. 평소에는 여덟 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짜증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연공을 한 뒤에는 네다섯 시간만 자도 충분했고, 스트레스도 사라졌다.

수련한 지 이제 8년이 되었는데, 외모는 늙기는커녕 오히려 더 젊어졌다. 올해 40살이지만, 사람들은 20대로 보인다고 말한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기준으로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며, 여러 층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공은 계속해서 파룬따파를 비방하고 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하고 귀중한 대법 수련이 왜 이토록 심각한 박해를 받아야 할까? 사실 이는 선과 악 사이의 공개적인 전쟁이며, 인류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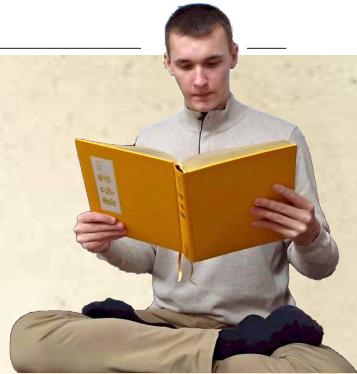
나는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다. 파룬따파가 박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매우 안타까워했다. 박해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대법 사부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기간,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청원서에 서명했던 이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 사부님의 자비에 깊이 감사드린다.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한 폴란드 청년의 인생 이야기: 가족애와 부, 행복

명혜기자 선릉(沈容) 취재 보도



총명한 재능을 지닌 파비는 한때 돈에 대한 욕망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모든 의욕을 잃고, 살아갈 힘마저 거의 잊을 뻔했다. 그의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다시 빚어 준 것은 바로 ‘전법륜(转法轮)’이라는 책이었다.

파비는 폴란드 청년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그는 부모에게서 다정한 미소를 받아 본 적도, 따뜻한 포옹을 느껴 본 적도 없다. 그가 태어난 뒤 부모가 이혼해 각자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다.

부모 없이 지낸 날들은 차갑고 고독한 길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제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곧 부모였습니다.”라고 파비는 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며 신앙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신자들이 말은 그럴듯하

게 하면서도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았고,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돈을 벌다

파비는 천성이 총명해 늘 책에 파묻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곤 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해커’가 되어 기밀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훔쳐 다른 회사에 팔았고, 그로 인해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선한 본성을 지닌 파비는 이런 삶이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국 폴란드를 떠나 독일로 향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 한 푼도 가지지 않았죠. 돈이 없어 호텔에 묵을 수 없었고, 길가에서 잠을 자며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 무렵 파비는 술집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



었다.

“그분은 프랑크푸르트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면 되는 회사였죠. 그는 베를린에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마케팅과 수익 창출 방법을 알려 주자, 그는 ‘이제 당신은 내 직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파비의 도움으로 이 회사는 고객 수와 매출이 몇 배로 성장했다. 그 역시 큰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책임자로 승진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정성 어린 선물도 많이 마련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별세가 남긴 충격과 성찰

그러나 2016년, 한 통의 전화는 마치 폭탄처럼 파비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페인에서 여행 중이었을 때 할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할머니는 울고 계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소식은 마치 맑은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 같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도 없고,

할아버지를 다시 살릴 수도 없으니까요. 삶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저는 계속 상실감에 잠겨 있었어요. 심지어 길을 걷다 버스를 보며 ‘저기에 치여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파비는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돈을 번 뒤 정말로 행복해졌나요? 어떻게 해야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생길까요?” 파비는 많은 답변을 받았다. 일부는 그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많은 사람이 책을 추천해 주었는데 스무 권이 넘었다. 그중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관련 서적도 있었고, ‘전법륜’도 포함돼 있었다.

파비는 이렇게 말했다. “순서대로 책을 사서 읽었어요. 열다섯 번째 추천받은 ‘전법륜’을 펼치고 ‘논어’를 읽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라고요.”

‘전법륜’이 인생을 밝히다

파비는 ‘전법륜’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마치 머리를 맑게 씻어 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는 단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전법륜’을 읽을 때마다 매번 서로 부동한 깨달음과 수학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 인생에 마치 한 줄기 등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세상 전체가 밝아졌죠. 게다가 제 몸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두통과 코피가 잦아 병원을 자주 다니며 많은 약을 먹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어졌어요.”

삶의 풍경은 여전히 같고 사람과 일 또한 달라지지 않았지만, 파비에게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제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파비는 감사한 마음을 안고 중국을 찾았다. “‘전법륜’이라는 책이 이렇게 훌륭하고, 사부님도 중국 분이시니 꼭 중국에 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이징에 도착하자 곳곳에 공산당 선전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어 광저우로 가서 현지인들에게 파룬궁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려 했는데, 상대방이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경험은 파비로 하여금 박해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독일로 돌아간 뒤, 그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수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비는



▲ 파룬궁 제5장 공법을 하고 있는 폴란드 청년 파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일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고객들은 긴급한 사고 상황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작업자들에게 일부러 자물쇠나 문을 훼손하게 해, 고객이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파비는 양심을 속인 채 더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의 컴퓨터와 열쇠, 중요한 자료들을 동업자에게 넘긴 뒤, 오랜 세월 공들여 운영해 온 회사를 미련 없이 떠났다. 그 순간 그는 온몸이 홀가분해지며, 마음까지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느꼈다.

2018년 5월 어느 날, 파비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으로 달



려가는 도중, 할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매우 슬펐지만, 하루 만에 다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대법이 있었고, 이미 많은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라고 파비는 말했다.

2020년, 27살이 된 파비는 포르투갈과 독일에 각각 한 곳씩 회사를 운영하

고 있었으며, 대만에서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와 이복 형제자매들과도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대법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 온 파비의 마음에는 어떤 원망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직접 가족들을 만나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었다.



파룬궁 백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는 리훙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근본지도로 삼으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은 사람을 선(善)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에게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용하는 좋은 사람이 되며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 수준과 경지를 향상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1998년 중

국 국가 체육

총국이 파룬궁 수련자 1만 255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 완치 및 기본 회복률은 77.5%, 건강개선율 20.4%를 더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 유효율은 97.9%에 달했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되었고 수련자 수는 1억이 넘는다. 인류의 심신 건강에 이바지한 뛰어난 공헌으로 리훙쯔 선생과 파룬따파는 여러 나라 정부로부터 총 1만 3000여 건이 넘는 포상, 지지 의안과 서신 등을 받았다.





원촨 대지진 속의 기적 경찰이 듣고 선한 마음이 생기다

글/ 위쥔(玉貞, 쓰촨)

나는 1998년 5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2008년 쓰촨 원촨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우리 집의 야자나무와 제단 안팎에는 불경에 전해진 삼천 년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피어 있었다. 나는 정말 큰 행운을 느꼈다.

항아리와 그릇이 모두 멀쩡했다

우리 집은 잡화점을 운영하였는데, 지진이 나기 전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대량으로 들여놓았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사부님의 법상과 대법 서적을 품에 안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당시의 상황은 매우 무서웠다. 집이 심하게 흔들렸고, 지붕의 기와가 수시로 떨어져 내렸다.

지진이 멈춘 뒤 거리로 나와 보니 사방이 처참했고, 다른 상점들의 물건들은 대부분 파손되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세 겹으로 쌓아 두었던 항아리들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유를 배달하던 한 젊은이는 놀라서 연달아 세 번 말했다. “이상해요! 항아리 하나도 안 떨어졌네!”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사부님의 보호에 깊이 감사드렸다.

친척과 친구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와 재산 피해가 어떠했는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 집 항아리와 그릇, 모든 상품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대법의 보호를 받았어!” 그들도 대법의 신기함을 직접 목격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 모두 알고 있다. 그렇게 큰 지진에



서도 깨지기 쉬운 물건을 파는 우리 가게가 전혀 피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파출소 소장의 각성

어느 날, 한 파출소 소장이 가게에 약을 사러 왔다. 내가 그에게 진상을 이야기하자 그는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잡아갈 거야.”라며, 자신이 어떻게 파룬궁 수련자들을 납치했고, 가택수색을 하고 책을 불태웠는지를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곧바로 말했다. “관직이 높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직접 목격한 대지진의 참혹한 상황을 이야기했고, 지진 속에서 우리 집이 대법의 보호를 받은 사실을 전했으며, 파룬파파가 불가(佛家)의 고덕대법이라는 점, 수련을 통해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삼퇴(三退·중공의 3대 조직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하면 평안을 얻는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이해한 듯 보였고, 몹시 후회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공산당에게 너무 크게 해를 입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야 합니까?” 나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 사부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대법 수련자들을 선하게 대하여, 당신이 가입했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는 다급히 말했다. “탈퇴하겠습니다!” 내가 “가명으로 탈퇴해 드릴게요.”라고 하자, 그는 “안 됩니다! 실명으로 탈퇴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 주셨어요!” 나는 말했다. “당신을 구하신 분은 우리 사부님이십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대법 책 한 권을 저에게 팔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답했다. “책은 팔 수 없지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책을 보기 전에는 손을 씻고, 이 보물 같은 책은 깨끗하고 비교적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떠나며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제가 압니다.”

그 후 이 파출소 소장은 모든 친척을 데리고 우리 가게로 와서, 내가 그들의 ‘삼퇴’를 도와주게 했다. 그들은 또한 자주 우리 가게에 와서 진상 자료를 가져갔다. 이 파출소 소장과 그의 친척들 모두가 진상을 깨닫고 구원받았다!





난세 속에서 신과 부처만이 우리를 지켜준다

글/ 리칭(李清, 중국)

지금은 경제가 침체하여 모든 산업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중국 각지에서 유독 두 가지 업종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바로 병원과 장례업이다.

대도시의 병원들은 늘 환자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종양 전문 병원은 연줄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기 어렵다. 화장장은 매일같이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지금은 코로나 유행 때 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고 말한다.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로 시행된 이후, 중국인의 사망률과 중증 질환 환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원인이 독성 백신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다. 강제 접종 당시를 되돌아보면, 마치 제2의 문화대혁명과도 같았다. 백신을 맞지 않으

면 어른은 출근을 못 하고,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상점에서는 물건조차 살 수 없게 했다. 이후에 어떤 지역에서는 계란을 나눠 주거나 돈을 주며 백신을 맞으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사실 약간의 분석 능력만 있어도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맹목적 복종에 익숙해진 대다수 사람은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도 여전히 복종을 선택했다.

2021년에는 노인들이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집에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이 있으면, 지역사회 직원과 구청 관계자들이 수차례 찾아와 협박과 회유와 달래기, 속이기를 반복했다. 암 환자나 침대에 누워 있는 중증 환자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 그해 연말, 많은 노인이 한꺼번에 사망했고, 화장장은 시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과거에는 젊은 층의 돌연사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중·청년층의 급사가 흔한 일이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이후 암, 심근 경색, 뇌경색, 심장병, 백혈병, 에이즈, 대상포진, 결절 등의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의학적으로 이는 코로나 백신의 ADE(항체 의존성 증강) 현상이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 이 백신은 사람의 면역 체계를 파괴한 뒤 각종 질병을 확대·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이전의 중국인들이 여전히 중공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면, 3년이 넘는 전국적인 비정상적 봉쇄와 붉은 공포, 그리고 독성 백신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뒤에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깨어나, 마침내 사악한 정권이 사람을 해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누군가 중공의 악행을 폭로하면 곧바로 ‘반당(反黨)’으로 몰렸고, 일반 국민조차 사악한 정권을 두둔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사악한 정권의 눈에 국민은 그저 실험용 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말로 바늘이 자기 몸에 찔려 봐야 아픔을 아는 법이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렇다면 백신의 독성과 후유증을 없앨 방법이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다. “마가 한 자 높으면 도는 한 길 높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도

백신을 맞았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알고 ‘삼퇴’를 한 사람들 중 백신을 맞은 이들이 적지 않지만 독성 백신은 그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못했다. 그들에게 대법과 신불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 공산당은 자신이 ‘유령’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유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사령(邪靈), 즉 마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마귀에 맞설 수 없다. 특히 많은 중국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피로 물든 깃발 앞에서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선서해 왔다. 공산 사령은 바로 이 점을 구실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며,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 속한 이들에게 그 ‘헌신의 맹세’를 이행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므로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를 선언해야만, 그 독한 맹세를 제거하고 더는 사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불(神佛)뿐이며, 당신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 역시 신불뿐이다.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이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염하면, 반드시 신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접종 후 큰 불행이 닥칠뻔한 부친이 대법을 믿고 구원받다

글/ 위신(于欣, 헤이룽장)

부친은 1943년생으로, 철이 들어서부터 세뇌 교육의 해악을 받아 맹목적으로 중공을 따랐다. 중공이 저지른 각종 악행을 언급하기만 하면 부친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건 반당(反黨)이다”라고 했다. 부친이 늘 이런 말을 했다. “정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던 중 중공 정부 부처들이 백신 접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아버지는 백신이 무료인데다 맞으면 콩기름까지 준다는 말에 몰래 두 차례 접종했다. 첫 번째 접종 후부터 부친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접종을 한 뒤, 집안의 유전병인 폐 질환이 발작했고, 숨이 가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힐 정도였다.

2022년 봄, 부친은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고, 이후 식사조차 침대에서 했다. 게다가 위 통증까지 견디기 힘들어 결국 입원했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 병원이 병은 고칠 수 있어도 목숨은 살릴 수 없어요. ‘法轮大法好(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真善忍好(찐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 보세요.” 부친은 마치 구명줄을 잡은 듯 받아들였다. 숨이 차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계속 염했고, 때로는 소리 내어 외웠다.

나는 친분이 있는 의사와 상의했는데, 그 의사は “백신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인의 부친도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말했다. 나는 부친에게 이번 발병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설명했다.

부친이 말했다. “정부가 설마 사람을 해치겠어? 그런데 정말 사람 목숨을 안중에 두지 않는구나!” 큰 충격을 받은 부친은 진상을 받아들이고, 파룬따파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1년이 지나서 마침내 다시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온 가족이 부친이 회복된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 친족들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로 중공은 사람을 해치고, 대법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동창의 이야기: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글/ 장첸(张谦, 중국)

나는 한때 종양내과 의사였다. 2019년, 상하이에 오래 거주해 온 한 동창이 자신의 병세를 물어왔다. 그는 두 달 동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대장내시경 검사 보고서에는 결장에 심각한 점유 병변, 종양이 장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내시경조차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크게 놀랐다. 장암이 이 정도라면 사실상 조기 단계는 아니고, 설령 수술을 하더라도 2년밖에 살 수 없다.

그 동창은 당시 211 대학에 합격했고, 상하이에서의 직장 취직과 생활도 모두 순조로웠다. 그런데 어째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결장암에 걸린 것일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어릴 때 할머니는 위암, 할아버지는 폐암에 걸렸고, 그는 집에서 무릎을 끓고 하늘에 자신의 수명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나눠 달라고 기도했던 것

이다. 이후 할머니는 실제로 예순이 넘어서 아흔까지 장수했지만, 그는 스물아홉에 결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복분(福分)과 업력(业力)은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따로 있는 거야. 자기 생명을 함부로 담보로 맹세하면, 반드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어.”

그의 몸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병원 치료는 힘이 없었다. 나는 불법(佛法)의 힘만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파룬궁의 진상과 질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서 나타난 신기한 효과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덧붙여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전해주었다.

동창은 내 편지를 읽고 곧바로 ‘돌파 프로그램’을 통해 파룬궁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转法轮)’을 내려받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하늘에 선택된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책을 다 읽고 나니 사람 완전 승화된 것 같아.”

수술을 앞두고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종양이 자란 위치가 좋지 않아 항문을 보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큩니다. 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아직 29살이에요. 항문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차마 그에게 말하지 못했다. 종양이 이미 장관의 절반을 막고 있었기에, 수술 후 2년을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항문 보존 여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권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대법 사부님께서 제거해 주시길 진심으로 구해 봐. ‘전법륜’을 많이 읽고, 머릿속에 불법을 더 많이 담을수록 운명은 그만큼 바뀔 수 있어.” 그 기간 동창은 꾸준히 대법 서적을 읽고, 대법 음악을 들었다.

수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항문이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수술 후 병리 결과에서 종양 세포가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조기 대장암으로, 수술 후 완치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동창은 자신을 구해 준 분이 누구

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법의 신기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후 작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동창은 수술 후 복강에 삽입해 둔 배액관에서 계속 대변 찌꺼기가 흘러나왔다. 의사는 장이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매일 대법 서적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액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결과 보름이 넘도록 배액관에서는 계속 대변 찌꺼기가 나왔다.

나는 말했다. “대법 책을 읽을 때는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얻는 거야.” 그는 이 말을 듣고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대변 찌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이를 더 관찰한 뒤 배액관을 제거했다.

내가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당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탈당·탈단·탈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치를 한다고 오해한다. 그럴 때마다 이 동창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생명으로 맹세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그 맹세를 제거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왜 ‘삼퇴’가 필요한지 비교적 쉽게 이해한다.





“삼퇴”란 무엇인가? 어떻게 탈퇴하는가?

‘삼퇴(三退)’란 전 세계 탈당(退党) 사이트에서의 중공의 당·단·대 조직 탈퇴 선언을 말한다. 중공 조직에 가입할 때 사람마다 주먹을 들고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독한 맹세를 하는 순간, 공산 사령(邪靈)에 의해 다른 공간에서 ‘짐승의 기호(兽印)’가 찍히며, 그 생명은 공산 사령이 지배하게 된다.

탈당 사이트에서 진심으로 ‘삼퇴’를 선언하는 것은, 신불(神佛)에게 이제 중공 조직의 일원이 아니며 완전히 관계를 끊었음을 밝히는 것이기에 신불이 다른 공간에서 그 ‘짐승의 기호’를 지워 준다. 신불이 사악한 당의 죄악을 청산할 때, 당신과 무관하다.

따라서 ‘삼퇴’는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불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진심으로 탈퇴한다면 실명, 가명, 별명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자동 탈퇴나, 중공 조직 내에서 탈퇴는 ‘짐승의 기호’를 지울 수 없으므로 진정한 ‘삼퇴’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안을 지키는 효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4억 5640만 명이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과도 얻을 수 없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삼퇴’를 권하는 목적은, 소중한 중국인들이 중공의 죄악에 연루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재난에서 구하는 것이다.

삼퇴 방법

- ① 돌파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탈당 사이트에 접속: santui.tuidang.org
- ② 삼퇴 전용 이메일로 전자우편을 보내다: santui@tuidang.org
- ③ 북미 무료 서비스 전화로 전화: 1-702-873-1734
- ④ 현지 파룬궁수련자를 찾거나, 해외 친지·지인에게 부탁해 ‘삼퇴’.
- ⑤ 당장 ‘삼퇴’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삼퇴 선언을 공공장소에 게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글로벌 탈당 사이트로 전달해야 한다.





“걷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글/ 여군(如君)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간다. 500도는 고사하고, 100도 끓는 물에 손을 넣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공 중앙TV(CCTV)가 방송한 ‘톈안먼 분신자살’ 영상을 보면, 왕진동(王进东)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말 그대로 “꼬딱없이” 앓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어떤 시청자는 말했다. “요리하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만 팔에 튀어도 펄쩍뛰는데, 분신이 진짜라면, 왕진동은 텐안먼 광장에서 별씨 펄쩍펄쩍 뛰고 난리였을 거다.” 걷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게다가, 왕진동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초록색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



▲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왕진동은 “꼬딱없이” 앓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처럼 멀쩡하고,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누군가 실험 해봤다.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초 만에 병이 말랑해지고, 7초엔 모양이 변하고, 10초면 그냥 쪼그라든 덩어리가 된다. 왕진동 다리 사이의 병은 무슨 특수 소재라도 되는 건가?

‘분신자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지만, 중앙TV 기자는 이 장면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며 촬영했다. 원경, 근경, 클로즈업 까지 다 갖춘 고화질 영상, 이게 말이 되는가?

TV 전문가는 바로 한눈에 ‘연출된 장면’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톈안먼은 최대의 영화 세트 장이 됐다.”





설 명절 대련 모음



행복한 가정

덕을 중히 여기면 가보가 이어지고
선을 행하면 자손에게 복이 미치네

길성(吉星)이 비추다

폭죽 소리 속에 진상이 드러나고
한 송이 한 송이 매화 상서로운 기운을 전하네

봄이 대지에 돌아오다

봄이 인간 세상에 이르러 온갖 꽃을 안고
마음에 선념이 생기니 만 갈래 빛이 깃드네

만물이 새로워지다

도덕이 회복되니 민풍이 좋아지고
바른 법이 인간 세상에 서니 새 기상이 펼쳐지네

천하가 함께 경축하다

삼산오악이 한목소리로 불은의 광대함을 찬송하고
온 천하가 함께 대법의 영원함을 축원하네

불법은 끝이 없도다

불광이 널리 비쳐 만물이 깨어나고 만상이 새로워지며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아 중생이 깨닫고 마음이 돌아오네





감사는 동서양의 중요한 전통 명절들이 공유하는 핵심 주제로, 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 속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은 2025년 추수감사절, 파룬궁 수련자들이 명성 높은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참가해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는 모습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 성대한 축제에 22년 연속으로 참가했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